

## 第二・三次 韓露密約事件과 閔泳翊의 位置

朴 奉 植 (서울大學校文理大)

第二次 韓露密約事件을 1886年 여름, 第三次 韓露密約事件을 1887年 여름의 것으로 본다.

密約事件 또는 密約說 그 自體에 對한 說明이 앞서야 할것이나 이것을 閔泳翊의 位置와의 關聯에서 봄으로서 이 事件의 政治的인 性格을 좀더 뚜렷이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閔泳翊의 位置」라고 할때 여기에는 아직 定說을 求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는 것 같다. 本 研究發表는 閔泳翊의 密約事件과의 關聯을 밝힌다고 하기 보다는 기왕의 수수께끼에 또 하나의 수수께끼를 더해 주는 結果가 될지도 모른다. 다만 제가 Harvard 大學의 Hauthon 에 Library에서 본 Merrill 文書에서 散見되는 閔泳翊關係에 관한 書翰의 一部를 紹介하고자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먼저 大院君의 還國에서 부터 시작되는 閔族의 引俄制清의 傾向을 阻止하기 위한 努力이 密約說과 그에 따르는 國王廢位說이 었고 大院君의 再登場說이 었다고 본다. 이러한 事態에 있어서 袁世凱, 大院君, 閔泳翊 및 金允植이 同一線上에서 朝廷의 親露政策을 막으려하였다고 가정한다.

이런 關聯에서 첫째로 閔泳翊이 袁世凱와 義兄弟關係에 있었든 것은 周知의 사실이나 大院君의 還國에 대하여 閔泳翊은 態度를 取하였는냐를 의심해 볼 필요는 없을가? 大院君의 還國을 막기 위하여 많은 人士들이 天津을 來往하였고 閔泳翊도 그 중의 한 사람이 었다. 通說에는 大院君의 還國이 決定的인 것이 되고 李鴻章이 閔族과의 和解를 위하여 大院君을 保定府로 부터 天津으로 召還하려 하자 閔泳翊은 李鴻章의 和解勸誘를 피하여 天津을 떠나 南으로 向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885年 9月 6日字의 Merrill이 Hart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Merrill이 그 前日에 大院君과 閔泳翊을 訪問하니 形式上의 和解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兩者간에는 感情이 좋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즉 大院君이 天津에 왔을때 閔泳翊도 天津에 있었든것이 事實이 아니냐를 의심할수 있다. 따라서 당시 閔氏中에서는 閔應植의 執權을 꺾기 위하여 閔泳翊은 오히려 大院君의 還國을 환영하였을지 모른다(續福澤全集時事論集 第二卷「朝鮮の 大院君歸國(したり)」는 說은 注目할만 하다. 大院君의 還國이전 李鴻章은 外戚抑壓의 方略을 袁世凱 大院君 閔泳翊 및 金允植등과 協議하였든 것으로 생각하고 李鴻章은 閔泳翊個人과 大院君의 和解에 努力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와같은 關聯에서 第二次 密約事件에 있어서의 閔泳翊의 位置를 본다. 事件自體에 대한 說明은 田保橋 潔著 近代日鮮關係の 研究下 18面~52面과 李宣根著 韓國史 最近世編을 參照하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다만 이 事件이 閔泳翊에 의하여 暴露되었고 露國公使에게 보냈다는 公文의 寫本을 閔泳翊이 求得해 내었고 또 閔泳翊이 暴露한 것 까지 숨기려 하였든 것인데 이러한 事情은 理解가 가지 않는 바 아니나 이 事件을 辯明하기 위하여 國王의 使節로 淸廷에 가기 위하여 仁川을 떠난 그가 途中에 자취를 감추어 버린 理由는 무엇이나? 즉 國王의 使節이란 名目으로 袁世凱가 그를 서울로 부터 脫出케 한 사정은 理解가 되나 왜 閔泳翊이 도중에 天津으로 가지 않고 上海로 달아났느냐의 疑問이다(Letter of 18th Sept-mber, 1886 from Merrill to Hart). 그리고 密約說이 떠돌고 袁世凱가 國王廢位를 天津에 권유하기 위한 物的資料로서 提示한 韓廷으로 부터 露國公使의 公文은 당시 駐韓英國代理總領事 Baker가 造作하여 袁에게 提示하였다고 폭노한 Baker의 後任 Parker의 所論은 一顧의 價値도 없는 것일까? 이 사건에 관련된 Denny의 所論은 다음해 1887年 여름의 事件에 관한 것이니 이는 第三次 密約事件에서 본다(李宣根著 韓國史 最近世編에서는 1886年과 1887年의 事件을 區別하지 않고 Denny의 所論을 引用하고 있다. 여기서는 1886年의 것을 第二次 1887年의 것을 第三次 密約事件으로 前提한다).

1887年 여름의 事件은 駐韓英國領事가 袁公에게 韓俄密約說을 傳하였고 袁은 또 다시 韓王廢位를 피한 일이다.

이 사건에 대한 Denny의 淸韓論에서의 所論과 그가 1888年 5月 Merrill에게 한 말사이에 閔泳翊에 關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다. 淸韓論에서는 袁의 國王廢位陰謀를 閔泳翊이 始終 國王과 自己(Denny)에게 報告해 줌으로서 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고 閔을 有能한 臣下로 칭찬하고 있으나 Merrill에게는 閔이 廢位陰謀에서 自己가 맡은 바 역할을 뜻이 없었기 때문인지 또는 勇氣가 없었기 때문인지 포기함으로서 計劃이 水泡로 돌아 갔다고 하고 있다(Letter of May 23, 1888, from Merrill to Hart).

끝으로 閔泳翊이 1887年 7月 末 남 몰래 俄船으로 仁川을 脫出한 事件을 引俄保護之事를 위하여 갔다는 風說이 있었고 袁은 이것을 認定하려 하지 않았다 王信忠 中日甲午戰爭之外交背景 109面)고 한다. 그러나 袁은 閔泳翊이 仁川을 떠났음을 알자 곧 淸艦一艇을 보내어 閔을 잡아 오게 하였으나 閔은 芝罘에 到着하자 上海로 도망쳤다고 한다. Merrill의 俄船으로의 脫出은 Denny가 暴露한 事件의 性格으로 보아 閔은 袁에 대한 立場을 추척하면 理解가 간다. 다만 여기서 理解되지 않는 것은 왜 그가 맡은 바 役割을 포기 하였든가 하는 것이다.

二・三次의 경우 모두 閔族을 除去하려는 袁의 計劃에 閔泳翊은 참여 하였고 또 그 計劃은 항상 大院君을 代案으로 登場시키는 것이 었다. 이렇게 보면 閔泳翊은 天津서 李鴻章의 謁見으로 大院君과 和解에 이른것이 사실인지 모른다. 그리고 二次密約事件에서 閔의 比較的 뚜렷한 역할을 閔泳翊과 大院君과의 親밀한 關係를 더욱 뚜렷이 해주는 것이 아냐? 이 경우 閔이 天津으로 向하지 않고 자취를 감추어 포린 사실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지 단, 第三次의 경우 Denny가 清韓論에서 閔에 관한 야기는 의문의 여지가 많으며 역시 Merrill에 말한대로 그의 勇斷性 없는 性格이 그러한 行動으로 이끌게 했는지 모른다. 여기서도 袁이 閔을 도로 잡아 오려 했든 理由는 明白하지 않다.